달마 혈맥론(血脈論)

1　心外無佛性

마음 떠나서 부처 찾을 수 없으니 자기마음이 바로 보리요 열반이다

三界混起 同歸一心 삼계혼귀 동귀일심

"삼계(三界)가 어지럽게 일어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前佛後佛 以心傳心 전불후불 이심전심

앞서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이 모두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 것이지

不立文字 불입문자

글자에 의존하지 않았느니라."

問曰 若不立文字 以何爲心 문왈 약불입문자 이하위심

어떤 이가 묻기를 "만약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음을 표현합니까." 하였다.

答曰 답왈　이렇게 대답했다.

汝問吾　卽是汝心 여문오　즉시여심

"그대가 나에게 묻는 그 자체가 그대의 마음이고,

吾答汝 卽是吾心 오문여 즉시오심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吾若無心 因何解答汝 오약무심 인하해답여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汝若無心 因何解問吾 여약무심 인하해문오

그대가 마음이 없다면 어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問吾卽是 汝心 문오즉시 여심

나에게 묻는 그 자체가 바로 너의 마음이다.

從無始曠大劫以來 乃至施爲運動 一切時中 一切處所

종무시광대겁이래 내지시위운동 일체시중 일체처소

끝없는 옛날부터 활동하고 살아온 모든 시간과 장소들이

皆是汝本心 皆是汝本佛 개시여본심 개시여본불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卽心是佛 亦復如是 즉심시불 역부여시

마음이 곧 부처라 함도 바로 이와 같아서이다.

除此心外 終無別佛可得 제차심외 종무별불가득

마음을 떠나서 달리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離此心外 覓菩提涅槃 無有是處

이차심외 멱보리열반 무유시처

이 마음을 떠나 보리와 열반을 구한다면 옳지 못하다.

自性眞實 非因非果 자성진실 비인비과

자성(自性)은 진실하므로 인과(因果)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法卽是心義 법즉시심의

법 그 자체가 마음이다

自心 是菩提 自心是涅槃 자심 시보리 자심시열반

스스로의 자기 마음이 바로 보리요 열반인 것이다.

若言心外 有佛及菩提可得　약언심외 유불급보리가득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고 보리를 얻는다 한다면

옳지 않다.

無有是處 佛及菩提 皆在何處 무유시처 불급보리 개재하처

도대체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디에 있는가?

譬如有人 以手捉 虛空得否 비여유인 이수착 허공득부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虛空但有名 亦無相貌 取不得 허공단유명 역무상모 취부득

허공은 이름일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으니 잡을 수가 없다.

是捉空不得 除此心外 覓佛終不得也 시착공부득 제차심외 멱불종부득야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는 것도 헛일이다

2 佛是自心作得

부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마음 떠나 어찌 부처를 찾겠는가

佛是自心作得 因何離此心外 불시자심작득 인하이차심외

부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마음을 떠나 어찌 부처를 찾겠는가.

覔佛 前佛後佛 只言其心 멱불 전불후불 지언기심

먼저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들이

단지 마음 하나만을 말씀하였으니

心卽是佛 佛卽是心 심즉시불 불즉시심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며

心外無佛 佛外無心 심외무불 불외무심

마음 떠나 부처 없고 부처 떠나 마음 없다.

若言心外有佛 佛在何處 약언심외유불 불재하처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心外旣無佛 何起佛見 심외기무불 하기불견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면

어찌 부처라는 소견을 낼 수 있겠는가?

遞相誑惑 不能了本心 체상광혹 불능요본심

이는 서로를 속여서 근본마음(本心)을 알지 못하고

被他無情物攝 無自由 피타무정물섭 무자유

무정물(無情物 : 佛像 따위)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若也不信 自誑無益 약야불신 자광무익

만약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다.

佛無過患 衆生顚倒不覺 不知自心是佛 불무과환 중생전도불각 부지자심시불

부처는 허물이 없으나 중생이 잘못(顚倒)되어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若知自心是佛 약지자심시불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을 안다면

不應心外覓佛 불응심외멱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다.

佛不度佛 將心覓佛 不識佛 불부도불 장심멱불 불식불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但是外佛者 盡是不識自心是佛 단시외불자 진시불식자심시불

다만 바깥의 부처는 모두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을 몰라서이다.

亦不得將佛禮佛 역부득장불예불

그러므로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不得將心念佛 부득장심염불

마음을 가지고 염불하지도 말라.

佛不誦經 불불송경

부처는 경도 읽지 않으며,

佛不持戒 불불지계

부처는 계도 지니지 않으며,

佛不犯戒 불불범계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으며,

佛無持犯 불무지계

부처는 지니는 것도 범하는 것도 없으며,

亦不造善惡 역불조선악

또한 선악을 짓지도 않는다.

若欲覓佛 須是見性卽是佛 약욕멱불 수시견성즉시불

만일 부처를 찾으려면 견성(見性)해야 곧 부처가 된다.

若不見性 念佛誦經持齋持戒 亦無益處 약불견성 염불송경지재지계 역무익처

견성하지 못하고 염불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계(齋戒)를 지키거나 계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

念佛得因果 誦經得聰明 염불득인과 송경득총명

염불은 왕생하는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며,

持戒得生天 布施得福報 지계득생천 보시득복보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하면 복의 과보를 받지만

覓佛終不得也 멱불종부득야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다.

若自己不明了 약자기불명료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으면

須參善知識 了却生死根本 수참선지식 요각생사근본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깨쳐야 한다.

若不見性 卽不名善知識 약불견성 즉불명선지식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若不如此 縱說得十二部經 약불여차 종설득십이부경

만약 그렇다면 12부 경을 다 외운다 해도

亦不免生死 역불면생사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輪廻三界受苦 윤회삼계수고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으며

無出期時 무출기시

벗어날 기약이 없다.

3 切須苦求 令心會解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마음 열리게 하라

昔有善星比丘 誦得十二經部 석유선성비구 송득십이경부

옛날에 선성(善星)이란 사람은 12부경을 다 외웠으나

猶自不免輪廻 유자불면윤회

여전히 윤회를 면치 못했으니,

緣爲不見性 연위불견성

이는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善星旣如此 선성기여차

선성도 그러하거늘

今時人 講得三五本經論以 금시인 강득삼오본경론이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爲佛法者愚人也 위불법자우인야

불법을 알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若不識得自心 약불식득자심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誦得閒文書 都無用處 송득한문서 도무용처

부질없이 문구나 외운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若要覓佛 直須見性 약요멱불 직수견성

만일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모름지기 견성해야 한다.

性卽是佛 성즉시불

성품이 곧 부처이다.

佛卽是自在人 無事無作人 불즉시자재인 무사무작인

부처는 곧 자유인이며, 무위(無爲)의 사람이다.

若不見性 終日茫茫 약불견성 종일망망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종일토록 분주히

向外馳求 覓佛元來不得 향외치구 멱불원래부득

밖을 향해 구하면서 부처를 찾아도 얻지 못한다.

雖無一物可得 수무일물가득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나,

若未會亦須參善知識 切須苦求 약미회역수참선지식 절수고구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令心會解 영심회해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生死事大 不得空過 생사사대 부득공과

생사 문제는 큰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自誑無益 자광무익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이 없다.

縱有珍寶如山 眷屬如恒河沙 종유진보여산 권속여항하사

진기한 보물이 산 같고 권속이 항하의 모래처럼 많다 해도,

開眼卽見 合眼還見麽 개안즉견 합안환견마

눈을 떠야 보이지 눈을 감으면 보이던가?.

故知有爲之法 如夢幻等 고지유위지법 여몽환등

그러므로 유위법(有爲法)은 꿈이나 허깨비 같음을 알 수 있다.

若不急尋師 空過一生然卽 약불급심사 공과일생연즉

만약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으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리라.

佛性自有 若不因師 終不明了 불성자유 약불인사 종불명료

그러므로 불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나

스승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끝내 밝게 깨달을 수 없다.

不因師悟者 萬中希有 불인시오자 만중희유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드물다.

若自己 以緣會合 得聖人意 약자기 이연회합 득성인의

만약 스스로 인연따라 깨달아서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은

卽不用參善知識 즉불용참선지식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此卽是生而知之勝學也 차즉시생이지지승학야

이는 태어나면서 뛰어난 학문을 갖춘 것이고,

若未悟解 須勸苦參學

약미오해 수권고참학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에게 배워야 한다.

因教 方得悟

인교 방득오

가르침을 받아야 깨닫는다.

若自明了 不學亦得

약자명료 불학역득

만약 스스로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지 않아도 되며,

不同迷人

부동미인

미혹된 사람과는 같지 않다.

不能分別皀白 妄言宣佛勅

불능분별조백 망언선불칙

그리고 검고 흰 것을 분간치 못하면서

불법을 편다고 망언을 한다면

謗佛妄法

방불망법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如斯等類 說法如雨

여사등류 설법여우

이런 부류는 빗줄기같이 설법을 하더라도

盡是魔說 卽非佛說

진시마설 즉비불설

다 악마의 소리요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師是魔王

사시마왕

이런 스승은 마왕이요,

弟子是魔民

제자시마민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 되며,

迷人任他指揮

미인임타지휘

미혹된 사람은 그의 지휘에 따라

不覺墮生死海

불각타생사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헤매게 된다.

4 佛卽是性

부처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但是不見性人 妄稱是佛

단시불견성인 망칭시불

만약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 일컫는 다면

此等衆生 是大罪人

차등중생 시대죄인

이런 중생은 큰 죄인이라

誑他一切衆生 令入魔界

광타일체중생 영입마계

많은 중생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若不見性 說得十二部經教

약불견성 설득십이부경교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12부 경을 모두 연설한다 해도

盡是魔說 魔家眷屬 不是佛家弟子

진시마설 마가권속 불시불가제자

다 악마의 말이요, 악마의 권속이지 부처의 제자는 아니다.

旣不辨皀白 憑何免生死

기불변조백 빙하면생사

이렇듯 검고 흰 것을 분간할줄 모르는데

무엇에 의지해 생사를 면하겠는가.

若見性卽是佛

약견성즉시불

만약 견성하면 부처요

不見性卽是衆生

불견성즉시중생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이다.

若離衆生性

약리중생성

그러나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別有佛性可得者

별유불성가득자

따로 부처의 성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佛今在何處

불금재하처

부처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卽衆生性 卽是佛性也

즉중생성 즉시불성야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性外無佛 佛卽是性

성외무불 불즉시성

성품 밖에 부처가 없으니 부처가 바로 이 성품이다.

除此性外 無佛可得者

제차성외 무불가득자

그러므로 이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고

佛外無性可得

불외무성가득

부처를 떠나서 성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問曰 若不見性 念佛頌經

문왈 약불견성 염불송경

어떤 이가 물었다. “만약 견성을 못해도 염불하고, 경 읽고,

布施持戒精進 廣興福利

보시지계정진 광흥복리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며 널리 복을 닦으면

得成佛否

득성불부

부처가 됩니까.”

答曰 不得

답왈 부득

대답했다. “될 수 없다.”

又問 因何不得

우문 인하부득

다시 물었다. “어째서 안됩니까.”

答曰 有少法可得 是有爲法

담왈 유소법가득 시유위법

대답했다.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으면 이는 유위법이요,

是因果 是受報 是輪廻法

시인과 시수보 시윤회법

인과법이고, 과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하는 법이라

不免生死 何時得成佛道

불면생사 하시득성불도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는가?

成佛須是見性

성불수시견성

부처를 이루려면 견성해야 한다.

若不見性 因果等語 是外道法

약불견성 인과등어 시외도법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가 외도의 법이 된다.

若是佛不習外道法 약시불불습외도법

만약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는다.

佛是無業人 無因果 불시무업인 무인과

부처는 업(業)도 없고 인과도 없다.

但有少法可得 단유소법가득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盡是謗佛 憑何得成 진시방불 빙하득성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짓이니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但有住着一心一能一解一見 단유주착일심일능일해일견

마음이라든가, 기능, 견해, 소견 따위에

조금이라도 집착함이 있다면

佛都不許 불도불허

부처는 이 모두를 허용하지 않는다.

5 心性本空 無修無證

부처는 계를 지닐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다

佛無犯持

불무범지

부처는 계율 따위를 범할 것도 지킬 것도 없다.

心性本空

심성본공

심성(心性)이 본래 비었으므로

亦非垢淨諸法 無修無證

역비구정제법 무수무증

더럽다거나 깨끗한 법도 없고,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고,

無因無果

무인무과

원인도 결과도 없다.

佛不持戒

불불지계

부처는 계를 지닐 것도 없고,

佛不修善

불불수선

닦을 선도 없고,

佛不造惡

불불조악

지을 악도 없고,

佛不精進 佛不懈怠

불불정진 불불해태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佛是無作人

불시무작인

부처는 조작(造作)함이 없는 사람이므로

但有住着心見

단유주착심건

만약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佛卽不許也

불즉불허야

부처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佛不是佛

불불시불

그러므로 부처라 하면 이는 부처가 아니니

莫作佛解　막작불해약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아야 한다.

若不見此義　불견차의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一切時中 一切處所　일체시중일체처소

언제 어디에서나

皆是不了本心　개시불료본심

근본 마음을 알 수 없다.

若不見性　약불견성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서

一切時中 擬作無作想 일체시중 의작무작상

항상 조작(造作)함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是大罪人 是癡人 시대죄인 시치인

큰 죄인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다.

落無記空中 낙무기공중

이는 무기공(無記空:아무 분별없는 공)에 빠진 것으로

昏昏如醉人 不辨好惡 혼혼여취인 불변호오

캄캄함이 마치 취한 사람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간조차 못한다.

若擬修無 作法 先須見性然後 약의수무 작법 선수견성연후

만약 조작됨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면 먼저 견성한 뒤에

息緣慮 식연려

모든 반연하는 생각을 쉬어야 한다.

若不見性 得成佛道 無有是處 약불견성 득성불도 무유시처

견성하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有人 撥無因果 유인 발무인과

어떤 사람이 인과를 무시하고

熾然作惡業 치연작악업

분주히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妄言本空 作惡無過 망언본공 작악무과

망령되이 ‘본래 비었으므로 악한 짓을 해도 허물이 없다.’하며 헛소리를 한다면

如此之人 墮無間黑闇地獄 여차지인 타무간흑암지옥

이런 이는 무간지옥 · 흑암지옥에 떨어져

永無出期 영무출기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若是智人 不應如是見解 약시지인 불응여시견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견해를 내지 않는다.”

問曰 旣若施爲運動 一切時中

문왈 기약시위운동 일체시중

어떤 이가 물었다. “만일 분별하고 행위하는 온갖 시간이

皆是本心 개시본심

모두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色身無常之時 云何不見本心 색신무상지시 운하불견본심

육신이 죽을 때엔 어째서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答曰 本心常現前 汝自不見 답왈 본심상현전 여자불견

대답했다. “본심이 항상 눈 앞에 나타나 있으나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問曰 心旣見在 何故不見 문왈 심기견재 하고불견

물었다. “마음이 있어 볼 수 있다면 어째서 보이지 않습니까?”

師云 汝曾作夢否 사운 여증작몽부

도리어 물었다.“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答曰 曾作夢 답왈 증작몽

대답했다. “있습니다.”

6 取不得捨不得

마음이란 옛날과 지금 다를 바 없고

옳고 그름도 성인도 범부도 없다

問曰 汝作夢之時 문왈 여작몽지시

물었다.“그대가 꿈을 꿀 때,

是汝本身否

시여본신부

꿈 꾼 것이 그대의 육신인가?”

答曰 是本身

답왈 시본신

대답했다.“예 저의 육신입니다.”

又問 汝言語施爲運動

우문 여언어시위운동

거듭 물었다.“그대가 말하고 분별하고 활동하는 것이

以汝別不別

이여별불별

그대와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

答曰 不別

답왈 불별

대답했다. “다르지 않습니다.”

師云 旣若不別

사운 기약불별

스님이 대답했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卽此身 是汝本法身

즉차신 시여본법신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며,

卽此法身 是汝本心

즉차법신 시여본심

이 법신이 곧 그대의 근본 마음이다.

此心從無始曠大劫來

차심종무시광대겁래

이 마음이란 끝없는 옛적부터

與如今不別 未曾有生死

여여금불별 미증유생사

지금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서 생사라는 것이 없다.

不生不滅

불생불멸

따라서 생멸(生滅)도 없고,

不增不減 不垢不淨

부증불감 불구부정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함도 없으며,

不好不惡 不來不去

불호불오 불래불거

좋거나 나쁜 것도 없으며, 오거나 가는 것도 없으며,

亦無是非 亦無男女相

역무시비 역무남여상

옳고 그름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亦無僧俗老少

역무승속노소

승속(僧俗)이나 노소(老少)도 없으며,

無聖無凡 亦無佛亦無衆生

무성무범 역무불역무중생

성인도 범부도 없으며,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亦無修證 亦無因果

역무수증 역무인과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으며, 인과도 없으며,

亦無筋力 亦無相貌

역무근력 역무상모

힘도 없고 모양도 없다.

猶如虛空 取不得捨不得

유여허공 취부득사부득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山河石壁 不能爲碍

산하석벽 불능위애

산이나 강, 석벽(石壁) 따위도 장애가 되지 않으며,

出沒往來 自在神通

출몰왕래 자재신통

들고 나고 가고 옴에 자재하고도 신통하다.

透五蘊山 渡生死河

투오온산 도중생하

오온(五蘊 : 물질과 정신의 양면에 걸치는 일체의 유위법)의 산을 벗어나며,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므로

一切業 拘此法身不得

일체업 구차법신부득

모든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此心微妙難見

차심미묘난견

이 마음은 미묘해서 보기 어렵고,

此心不同色相

차심부동색상

이 마음은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으며,

此心是佛

차심시불

이 마음은 곧 부처이다.

人皆欲得見

인개욕득견

사람들 모두가 다 보고자 하지만

於此光明中 運手動足者

어차광명중 운수동족자

이 광명한 가운데서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如恒河沙 及乎問着

여항하사 급호문착

마치 강가의 모래알 같지만 물어보면

憁道不得 猶如木人相似

총도부득 유여목인상사

전혀 대답하지 못함이 마치 허수아비 같다.

憁是自己受用 因何不識

총시자기수용 인하불식

모두가 자기의 활동(受用)인데도 어째서 알지 못하는가?

7名雖不同 體卽是一

四大로 된 몸은 생멸이 있으나

法身은 머무르되 머무는 바 없다

佛言一切衆生 盡是迷人

불언일체중생 진시미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다 미혹된 사람이다.

因此作業

인차작업

이로 인하여 업을 지으므로

墮生死河 欲出還沒

타생사하 욕출환몰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게 되는 것은

只爲不見性

지위불견성

단지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셨다.

衆生若不迷 因何問着

중생약불미 인하문착

만약 중생이 미혹되지 않았다면 어째서 물음에 대해

其中 無有一人得會者

기중 무유일인득회자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自家運手動足 因何不識

자가운수동족 인하불식

자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故知聖人語不錯

고지성인어불착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迷人自不會曉

미인자불회효

미혹된 사람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 뿐임을 알 수 있다.

故知此心難明

고지차심난명

그러기에 이 마음은 밝히기 어려우나

唯佛一人 能會此心

유불일인 능회차심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시고

餘人天及衆生等 盡不明了

여인천급중생등 진불명료

그밖의 인간 ·하늘 및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한다.

若智慧 明了此心

약지혜 명료차심

만일 지혜로써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方名法性 亦名解脫

방명법성 역명해탈

비로소 법성(法性)이라 하고 해탈이라고도 한다.

生死不拘 一切法 拘他不得

생사불구 일체법 구타부득

생사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법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是名大自在王如來

시명대자재왕여래

대자재왕여래라 하며,

亦名不思議 亦名聖體

역명불사의 역명성체

부사의(不思議)라고도 하며, 성체(聖體)라고도 하며,

亦名長生不死 亦名大仙

역명장생불사 역명대선

장생불사라고도 하며, 대선(大仙)이라고도 한다.

名雖不同 體卽是一

명수부동 체즉시일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곧 하나이다.

聖人種種分明 皆不離自心

성인종종분별 개불리자심

성인들의 여러가지 분별은 다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心量廣大 應用無窮

심량광대 응용무궁

마음의 한량이 광대하여 응용함이 무궁하다.

應眼見色

응안견색

눈에 응하면 빛을 보고,

應耳聞聲 應鼻嗅香

응이문성 응비후향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應舌知味

응설지미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

乃至施爲運動 皆是自心

내지시위운동 개시자심

나아가 온갖 활동함이 다 자기 마음에 의해서이다.

一切時中

일체시중

그러나 언제든지

但有語言道斷 卽是自心

단유어언도단 즉시자심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진 것이 자기 마음이다.

故云如來色無盡

고운여래색무진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몸매(色)가 다함이 없으며,

智慧亦復然

지혜역부연

지혜도 그러하다.’하였으니,

色無盡是自心

색무진시자심

몸매가 다함이 없음이 곧 자기의 마음이다.

心識善能分別一切

심식선능분별일체

마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며

乃至施爲運用 皆是智慧

내지시위운용 개시지혜

나아가 온갖 분별과 활동이 다 지혜이다.

心無形相 智慧亦無盡故

심무형상 지혜역무진고

그러나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云如來色無盡 智慧亦復然

운여래색무진 지혜역부연

‘부처의 몸매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하시니,

四大色身 卽是煩惱 色身卽有生滅

사대색신 즉시번뇌 색신즉유생멸

사대(四大)로 된 몸은 번뇌의 몸이라서 생멸이 있으나

法身常住無所住

법신상주무소주

법신(法身)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如來法身 常不變異故

여래법신 상불변이고

여래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經云衆生應知佛性 本身有之

경운중생응지불성 본시유지

경에 ‘중생은 응당 불성(佛性)이

자기 몸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였다.

迦葉只是悟得本性

가섭지시오득본성

가섭도 단지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本性卽是心 心卽是性

본성즉시심 심즉시성

본성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바로 본성이다.

卽此同諸佛心

즉차동제불심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이다

8 但莫取相

이 마음 밖에서 부처 찾을 수 없으니

일체 형상과 모습은 다 헛된 것이다

前佛後佛 只傳此心

전불후불 지차전심

앞의 부처님이나 뒤의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除此心外 無佛可得

제차심외 무불가득

이 마음 밖에서 부처는 찾을 수 없다.

顚倒衆生 不知自心是佛

전도중생 부지자심시불

잘못된 중생이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 알지 못하고

向外馳求 終日忙忙 念佛禮佛

향외치구 종일망망 염불예불

하루 종일 바쁘게 염불, 예불을 하면서

밖을 향해 부처를 찾지만

佛在何處 不應作如是等見

불재하처 불응작여시등견

그 부처는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말라.

但識自心 心外更無別佛

단식자심 심외경무별불

단지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 밖에 딴 부처는 없다.

經云凡所有相 皆是虛妄

경운범소유상 개시허망

경에 말하기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하고,

又云所在之處 卽爲有佛

우운소재지처 즉위유불

또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하였다.

自心是佛 不應將佛禮佛

자심시불 불응장불예불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

但是有佛及菩薩相貌 忽爾現前

단시유불급보살상모 홀이현전

만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홀연히 나타나거든

切不用禮敬

절불용예경

절대로 예경하지 말라.

我心空寂 本無如是相貌

아심공적 본무여시상모

나의 마음은 공적(空寂)하니 본래 이런 형상은 없는 것이며,

若取相 卽是魔攝

약취상 즉시마섭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盡落邪道

진락사도

모두가 삿된 도에 떨어진다.

若知幻從心起

약지환종심기

만일 환상(幻相)이 마음을 따라 일어난 줄을 알면

卽不用禮

즉불용례

예경할 필요가 없다.

禮者不知

예자부지

그러므로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해서이고,

知者不禮

지자불례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禮被魔攝

예피마섭

예경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는 것이니

恐學人 不知故 作如是辨

공학인 부지고 작여시변

행여나 학인(學人)이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밝혀놓는다.

諸佛如來本相 體上

제불여래본상 체상

모든 부처님의 근본 성품 바탕 위에는

都無如是相貌 切須在意

도무여시상모 절수재의

도무지 이런 모습이 없으니 꼭 명심하여라.

但有異境界 切不用採括

단유이경계 절불용채괄

만일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결단코 캐려고 하지도 말고

亦莫生 怖 不要疑惑

역막생파포 불요의혹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혹심도 내지 말라.

我心本來淸淨

아심본래청정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何處 有如許相貌

하처 유여허상모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겠는가?

乃至天龍夜叉鬼神 帝釋梵王等相

내지천룡야차귀신 제석범왕등상

나아가 천룡 ·야차 ·귀신 ·제석 ·범왕 등에도

亦不用心生敬重 亦莫怕懼

역불용심생경중 역막파구

존경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我心本來空寂 一切相貌

아심본래공적 일체상모

내 마음이 본래 공적(空寂)하여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皆是妄相 但莫取相

개시망상 단막취상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니, 다만 형상만을 취하지 말라.

若起佛見

약기불견

만일 부처라는 견해나

法見及佛菩薩等相貌而生敬重

법견급불보살등상모이생경중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나

불 ·보살 등의 형상에 존경심을 낸다면

自墮衆生位中

자타중생위중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若欲眞會

약욕진회

만일 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但莫取一切相

단막취일체상

단지 온갖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卽得更無別語

즉득갱무별어

다시 다른 말이 없다.

9 道卽是禪

본성을 보지 못하면 禪이 아니다

본성 보는 것은 일자무식도 가능

故云經 凡所有相 皆是虛妄

고운경 범소유상 개시허망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했으니,

都無定實 幻無定相

도무정실 환무정상

도무지 일정한 형상이란 없으며,

환幻에 일정한 상이 없는 지라

是無常法

시무상법

이것이 무상의 법이다.

但不取相 合他聖意故

단불취상 합타성의고

다만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거룩한 뜻에 부합될 것이다.

그러므로,

經云 離一切相 卽名諸佛

경운 이일체상 즉명제불

경에서 '온갖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 한다.' 하였다."

問曰 因何不得禮佛菩薩等

문왈 인하부득예불보살등

물었다. "어째서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答曰 天魔波旬 阿修羅

답왈 천마파순 아수라

대답했다. "하늘의 마귀인 파순과 아수라 등이

示現神通 皆作得菩薩相貌

시현신통 개시득보살상모

신통을 나타내어 보살의 모습을 짓는 것은

種種變化

종종변화

갖가지로 변화해서 그런 것이니,

是外道 摠不是佛

시외도 총불시불

이는 외도의 짓이지 모두 부처가 아니다.

佛是自心 莫錯禮拜

불시자심 막착예배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부처에게 잘못 예배하지 말라.

佛是西國語 此土云覺性

불시서국어 차토운각성

부처란 인도어이고, 우리 말로는 각성(覺性)이라 하는데

覺者是靈覺 應機接物

각자시영각 응기접물

부처란 신령스러운 느낌이니,

상대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써서 교화하며,

揚眉瞬目 運手動足

양미순목 운수동족

눈섭을 치켜올리고 눈을 깜박이거나,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皆是自己靈覺之性

개시자기영각지성

다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신령스러운 깨달음(靈覺)의

성품 때문이다.

性卽是心 心卽是佛

성즉시심 심즉시불

성품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고,

佛卽是道 道卽是禪

불즉시도 도즉시선

부처가 곧 도(道)이며, 도가 곧 선(禪)이다.

禪之一字 非凡夫所測

선지일자 비범부소측

‘선’이라는 한 글자는 범부가 헤아릴 수는 없다.

又云見本性爲禪

우운견본성위선

또 ‘본성을 보는 것이 선(禪)이다’ 했으니

若不見本性 卽非禪也

약불견본성 즉비선야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假使說得千經萬論

가사설득천경만론

설사 많은 경론을 설한다 해도

若不見本性 只是凡夫

약불견본성 지시범부

본성을 못 보면 범부일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非是佛法 至道幽深

비시불법 지도유심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不可話會 典敎憑何所及

불가화회 전교빙하소급

어찌 경전으로 미칠 수 있겠는가.

但見本性 一字不識亦得

단견본성 일자불식역득

그러나 본성을 보는 것은 일자 무식자도 가능하다.

見性卽是佛 聖體本來淸淨

견성즉시불 성체본래청정

견성하면 곧 부처이고 그 성체(聖體)는 청정하므로

無有雜濊

무유잡예

더러움이 없다.

所有言說 皆是聖人 從心起用

소유언설 개시성인 종심기용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지만

用體本來空

용체본래공

작용의 바탕이 본래 비었으므로

名言尙不及

명언상불급

명칭이나 말로는 미칠 수가 없는데

十二部經 憑何得及

십이부경 빙하득급

12부 경이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10 道本無言 言說是妄

많은 경론 오직 마음 밝혔을 뿐이니

깨닫는다면 교법이 무슨 소용인가

道本圓成

도본원성

도(道)는 본래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니

不用修證

불용수증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으며,

道非聲色 微妙難見

도비성색 미묘난견

도는 소리나 빛이 아니라서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如人飮水 冷暖自知

여인음수 냉난자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는 알되

不可向人說也

불가향인설야

남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唯有如來能知

유유여래능지

오직 여래만이 알 수 있고

餘人天等類 都不覺知

여인천등류 도불각지

그 밖의 사람이나 하늘 등의 무리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凡夫智不及

범부지불능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하므로

所以有執相

소이유집상

겉모습에 집착하여

不了自心 本來空寂

불료자심 본래공적

자기 마음이 본래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妄執相及一切法 卽墮外道

망집상급일체법 즉타외도

망령되이 겉모양과 온갖 법에 집착하여 곧 외도에 떨어진다.

若知諸法 從心生

약지제법 종심생

만약 모든 법이 마음에서 생긴 것임을 알면

不應有執

불응유집

집착이 있을 수 없다.

執卽不知

집즉부지

집착하면 알지 못한다.

若見本性 十二部經 總是閑文字

약견본성 십이부경 총시한문자

만일 본성을 알게 되면 십이부경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이다.

千經萬論 只是明心

천경만론 지시명심

많은 경론이 오직 마음을 밝혔을 뿐이니

言下契會 敎將何用

언하계회 교장하용

언하(言下)에 깨닫는다면 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至理絶言 敎是語詞 實不是道

지리절언 교시어사 실불시도

지극한 진리는 말을 떠났는데 교법은 말씀이니

진실로 도가 아니다.

道本無言 言說是妄

도본무언 언설시망

도는 본래 말이 없고, 말이란 허망할 뿐이다.

若夜夢 見樓閣 宮殿 象馬之屬

약야몽 견루각 궁전 상마지속

만약 꿈에 누각이나 궁전, 상마(象馬)의 무리나

及樹木叢林池亭 如是等相

급수목총림지정 여시등상

나무 ·숲 ·못 ·정자 등의 모습을 보거든

不得起一念樂着

부득기일념악착

한 생각이라도 즐겨 집착하지 말라.

盡是托生之處 切須在意

진시탁생지처 절수재의

이것이 다 중생으로 의탁하는 것이 되니 부디 주의하여라.

臨終之時 不得取相 卽得除疑

임종지시 부득취상 즉득제의

임종할 때에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즉시 의혹을 떨어버리지만

心瞥起卽魔攝

심별기즉마섭

잠시라도 망심을 일으키면 마귀에 말려든다.

法身本來淸淨無受 只緣迷故

법신본래청정무수 지연미고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느낌이 없지만 다만 미혹된 까닭에

不覺不知 因玆故 妄受報

불각부지 인자고 망수보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런 까닭으로 망령되이 업보를 받고,

所以有樂着 不得自在

소이유락착 부득자재

이 때문에 즐기고 집착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只今若悟得 本來身心

지금약오득 본래신심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卽不染習

즉불염습

곧 습성에 물들지 않으리라.

若從聖入凡

약종성입범

성인이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

示現種種雜類等 自爲衆生故

시현종종잡류등 자위중생고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본래 중생을 위해서이다.

聖人逆順 皆得自在

성인역순 개득자재

성인은 역순(逆順)에 자재로워서

一切業 拘他不得

일체업 구타부득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聖成久 有大威德

성성구 유대위덕

성인의 지위가 오래되면 큰 위덕이 있어서

一切品類業 被他聖人轉

일체품류업 피타성인전

온갖 종류가 성인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므로

天堂地獄 無奈何他

천당지옥 무나하타

천당과 지옥도 성인을 어찌하지 못하게 된다.

11 隨分過日

의심 만들면 생사의 바다 떠돌아

후회해도 구제할 길이 없다

凡夫神識昏昧

범부신식혼매

범부는 아는 것이 어두워서

不同聖人內外明徹

부동성인내외명철

성인이 안팎으로 밝은 것과는 같지 않다.

若有疑卽不作

약유위즉부작

만약 의심이 생기거든 의심을 일으키지지 말아라.

作卽流浪生死

작즉유랑생사

의심을 만들면 생사의 바다에 떠돌게 되어

後悔無相救處

후회무상구처

후회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으리.

貧窮困苦 皆從妄相生

빈궁곤고 개종망상생

빈궁과 고통이 다 망상에서 생겼으니,

若了是心 遞相勸勉

약료시심 체상근면

만일 마음을 깨달아서 서로 서로 경책해서

但無作而作 卽入如來知見

단무작이작 즉입여래지견

작용하는 일 없이 작용하면 곧 여래의 지견(知見)에 들리라.

初發心人 神識總不定

초발심인 신식총부정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이 전혀 안정되지 못하니,

若夢 頻見異境 輒不用疑

약몽 빈견이몽 첩불용의

자주 꿈 속에서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선뜻 의심하지 말라.

皆是自心起故 不從外來

약시자심기고 부종외래

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夢若見光明出現 過於日輪

몽약견광명출현 과어일륜

꿈에 광명이 나타나는 것이 햇빛보다 밝은 것을 보면

卽餘習頓盡 法界性現

즉여습돈진 법계성현

남은 습기(習氣)가 다 없어지고 법계의 성품이 나타나리라.

若有此事 卽是成佛之因

약유차사 즉시성불지인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성불할 요인이 되는 것이니,

唯自知 不可向人說

유자지 불가향인설

이는 오직 자기만 알 뿐이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느니라.

或靜園林中行住坐臥

혹정원림중행주좌와

혹 고요한 숲 속에서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웠을 때,

眼見光明 或大或小 莫與人說

안견광명 혹대혹소 막여인설

눈에 크고 작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남에게 말하지도 말고

亦不得取 亦是自性光明

역부득취 역시자성광명

또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라. 이는 자기 성품의 광명이니라.

或夜靜暗中行住坐臥

혹야정암중행주좌와

혹 어두운 밤에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웠을 때,

眼見光明 與晝無異 不得怪

안견광명 여주무이 부득괴

대낮 같은 광명이 눈에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幷是自心 欲明顯

병시자심 욕명현

모두가 자기 마음이 밝아지려는 징조인 것이다.

或夜夢中 見星月分明

혹야몽중 견성월분명

혹 꿈에 별과 달이 분명하게 보이면

亦自心諸緣欲息

역자심제연욕심

자기 마음의 모든 반연이 쉬려는 조짐이니

亦不得向人說

역부득향인설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지어다.

夢若昏昏 猶如陰暗中行

몽약혼혼 유여음암중행

꿈에 어두워서 밤중을 다니는 것 같음을 보면

亦是自心煩惱障重 亦自知

역시자심번뇌장중 역자지

또한 마음의 번뇌의 장벽이 무겁다는 조짐이니 스스로 알아라.

若見本性 不用讀經念佛

약견본성 불용독경염불

만약 본성을 보았거든 경을 읽거나 염불할 필요가 없다.

廣學多知無益 神識轉昏

광학다지무익 신식전혼

많이 아는 것은 별 이익이 못되고 도리어 정신이 혼미해진다.

設教只爲標心

설교지위표심

교법을 시설해 놓은 뜻은 마음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니,

若識心 何用看教

약식심 하용간교

마음을 알면 교법을 볼 필요가 없다.

若從凡入聖

약종범입성

만일 범부로서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卽須息業養神 隨分過日

즉수식업양신 수분과일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대로 세월을 보내어라.

若多嗔喜 令性轉

약다진희 영성전

성냄과 기뻐함이 많으면 성품이 변해서

與道相偉 自賺無益

여도상위 자잠무익

도와는 어긋나며 스스로를 속일뿐 이익이 없다.

12 息業養神

선과 악 뚜렷하고 인과 분명하니

천당과 지옥이 오직 눈앞에 있다

聖人於生死中 自在出沒

성인어생사중 자재출몰

성인은 생사 가운데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隱顯不定 一切業 拘他不得

은현불정 일체업 구타부득

숨고 나타남이 일정치가 않아도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며

聖人破邪魔

성인파사마

성인은 도리어 삿된 마귀를 무찌른다.

一切衆生 但見本性

일체중생 단견본성

중생들이 본성을 보기만 한다면

餘習頓滅 神識不昧

여습돈멸 신식불매

나머지 습기가 몽땅 없어지고 정신이 어둡지가 않다.

欲眞會道 莫執一法

욕진회도 막집일법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息業養神

식업양신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라.

餘習亦盡 自然明白 不假用功

여습역진 자연명백 불가용공

나머지 습기가 다하면 자연히 밝아져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外道不會佛意 用功最多

외도불회불의 용공최다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공력을 많이 들이지만

違背聖意 終日驅驅 念佛轉經

위배성의 종일구구 염불전경

부처님의 뜻에 위배되어 종일 바쁘게 염불하고 경을 읽어도

昏於神性 不免輪廻

혼어신성 불면윤회

정신이 혼미해서 윤회를 면치 못한다.

佛是閑人 何用驅驅

불시한인 하용구구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라 어찌 구구할 필요가 있으며,

廣求名利 後時何用

광구명리 후시하용

명리를 널리 구한다 한들 후일 무엇에 쓰겠는가.

但不見性人 讀經念佛

단불견성인 독경념불

단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염불하며,

長學精進 六時行道

장학정진 육시행도

오래 정진하는 법도 배우고, 하루종일 수행하며,

長學坐不臥

장학좌불와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廣學多聞 以爲佛法

광학다문 이위불법

널리 배워 많이 아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니,

此等衆生 盡是謗佛法人

차등중생 진시방불법인

이런 중생은 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前佛後佛 只言見性

전불후불 지언견성

앞의 부처나 뒤의 부처도 단지 견성만을 말씀하셨다.

若不見性 妄言我得無上大道

약불견성 망언아득무상대도

견성하지 못하고 “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면

此是大罪人

차시대죄인

이 사람은 큰 죄인이다.

十代弟子 阿難 聲聞中得第一

십대제자 아난 성문중득제일

십대 제자 중에 아난이 성문 가운데 제일이나

佛責之 只令聲聞外道 無識

불책지 지령성문외도 무식

부처님은 ‘성문과 외도들로 하여금 무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識數修證 墮在因果中

식수수증 타재인과중

글자나 수효를 아는 것으로 닦아서 증득한다면

인과의 법칙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是衆生業報 不免生死

시중생업보 불면생사

이는 중생의 업보이어서 생사를 면치 못하며,

違背佛意 卽是謗佛衆生

위배불의 즉시방불중생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殺却無罪過

살각무죄과

물리쳐도 허물이 없다.

經云闡提人 不生信心 殺却無罪過

경운천제인 불생신심 살각무죄과

경에 말하기를 "천제(闡提: 악을 행하는 사람. 즉 성불할 성품이 없는 사람)는 신심을 내지 않으니 물리쳐도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若有信心 此是佛位人

약유신심 차시불위인

만약 신심만 있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若不見性 卽不用取次 謗他良善

약불견성 즉불용취차 방타양선

그러나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다른 선량한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된다.

自賺無益

자잠무익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다.

善惡歷然 因果分明

선악역연 인과분명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한지라

天堂地獄 只在眼前

천당지옥 지재안전

천당과 지옥이 오직 눈앞에 있다.

13 本來無有一物可得

"견성 못하면 머리 깎았다 해도

역시 외도일 뿐이다"

愚人不信 見墮黑暗地獄中 不覺不知

우인불신 견타흑암지옥중 불각부지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 까닭에 흑암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나니,

只緣業重故 所以不信

지연업중고 소이불신

오직 업장이 무거우므로 믿지않는다.

譬如無目人 不信道日有光明

비여무목인 불신도일유광명

마치 소경이 햇빛이 있다는 말을 말을 믿지 않는것과 같다.

縱向伊說 亦不信

종향이설 역불신

설사 그에게 말해 주더라도 역시 믿지 않는것과 같다.

只緣盲故 憑何辨得日光

지연맹고 빙하변득일광

오직 눈이 없기 때문이니 어떻게 햇빛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愚人亦復如是

우인역부여시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見今墮畜生雜類 誕在貧窮下賤

견금타축생잡류 탄재빈궁하천

방금 축생 등 잡된 무리에게 떨어졌다거나

빈궁. 하천한 무리에 태어나서

求生不得 求死不得

구생부득 구사부득

살려해도 살 수 없고

죽으려해도 죽을 수 없다.

雖受是苦

수수시고

비록 이러한 고통을 받으나

直問着 亦言我今快樂 不異天堂

직문착 역언아금쾌락 불이천당

직접 물어보면 도리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쾌락한 것이 천당과 다르지 않다."하니

故知一切衆生 生處爲樂 亦不覺不知

고지일체중생 생처위락 역불각부지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은 태어난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역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如斯惡人 只緣業重

여사악인 지연업중

이런 악인은 업장이 두텁기 때문이다.

若見自心是佛 不在剃除鬚髮

약견자심시불 부재체제수발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안다면

머리와 수염을 깎을 필요가 없고,

白衣亦是佛 若不見性

백의역시불 약불견성

속인도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견성하지 못하면

剃除鬚髮 亦是外道

체제수발 역시외도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해도 역시 외도일 뿐이다.”

問曰 白衣有妻子 婬慾不除 憑何得成佛

문왈 백의유처자 음욕불제 빙하득성불

어떤 이가 물었다.

“속인은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음욕을 없애지 못하는데

어찌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까.”

答曰 只言見性 不言婬慾

답왈 지언견성 불어음욕

대답한다. “단지 견성만을 말했지, 음욕은 말하지 않았다.

但得見性 婬慾本來空寂 不假斷除

단득견성 음욕본래공적 불가단제

음욕이란 본래 공적하니

견성만 하면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

亦不樂着 縱有除習 不能爲害

역불락착 종유제습 불능위해

또 쾌락에 집착하지 않으니 남은 습기가 있다 해도

방해되지 않는다.

何以故 性本淸淨故

하이고 성본청정고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雖處在五蘊色身中

수처재오온색신중

비록 오온의 몸 속에 있다 해도

其性本來淸淨 染汚不得

기성본래청정 염오부득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물들지 않는다.

法身本來無受

법신본래무수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어서

無飢無渴 無寒熱

무기무갈 무한열

주림도 목마름도 없고, 추위도 더위도 없고,

無病 無恩愛 無眷屬

무병 무은애 무권속

질병도 없고, 은혜와 사랑도 없고, 권속도 없고,

無苦樂 無好惡 無長短

무고락 무호오 무장단

고락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장단도 없고,

無强弱 本來無有一物可得

무강약 본래무유일물가득

강약도 없어서 본래부터 한 물건도 얻을 수가 없다.

只緣有此色身 卽有飢渴寒 熱 病等相

지연유차색신 즉유기갈한 열장병등상

단지 이 몸이 있기에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질병 등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이니

若不賺卽一任作

약불잠 즉일임작

만약 속지 않으려면 즉시 한번 맡겨 행동해 보아라.

14 疑心頓除

걸림 없으면 편하지 않는 곳 없다

마음을 알면 한 글자 몰라도 부처

若於生死中得自在 轉一切法

약어생사중득자재 전일체법

만약 생사 가운데서 자재함을 얻어 모든 법을 전하고

與聖人神通 自在無碍

여성인신통 자재무애

성인의 신통처럼 자재하여 걸림이 없으면

無處不安

무처불안

편안하지 않는 곳이 없다.

若心有疑

약심유의

만약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決定透一切境界不過

결정투일체경계불과

결코 일체의 경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不免生死輪廻

불면생사윤회

생사의 윤회를 면치 못할 것이지만

若見性 旃陀羅 亦得成佛

약견성 전다라 역득성불

만약 견성한다면 전다라 같은 백정도 성불할 수 있느니라.”

問曰旃陀羅 殺生作業 如何得成佛

문왈전다라 살생작업 여하득성불

물었다. “전다라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答曰只言見性 不言作業

답왈지언견성 불언작업

대답했다. “단지 견성만을 말했지

업을 짓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縱使作業 不同迷人

종사작업 부동미인

비록 업을 짓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달라서

一切業抱他不得

일체업포타부득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從無始曠大劫來 只爲不見性

종무시광대겁래 지위불견성

끝없는 옛날부터 오직 견성하지 못했기에

墮在地獄中

타재지옥중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所以作業 輪廻生死

소이작업 윤회생사

업을 지은 까닭에 생사에 윤회한 것이지만

悟得本性 從不作業

오득본성 종불작업

근본 성품을 깨달으면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若不見性 念佛免報不得

약불견성 엽불면보부득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염불을 한들 과보를 면할 수 없다.

非論殺生

비론살생

살생이 문제가 아니라,

若見性 疑心頓除

약견성 의심돈제

만약 견성하여 마음의 의혹을 없애버리면

殺害生命 亦奈何他不得

살해생명 역내하타부득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그를 어찌하지 못한다.

自西天二十八祖 只是遞傳心印

자서천이십팔조 지시체전심인

인도의 28명의 조사들도 오직 심인(心印)을 전하였고

吾今來此土

오금내차토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것도

唯傳頓敎卽心是佛

유전돈교즉심시불

돈교(頓敎 : 금방 깨달음을 얻는 법을 보인 교법),

즉 마음이 부처라는 법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不言持戒精進苦行

불언지계정진고행

지계(持戒)·정진(精進)·고행(苦行)이나

乃至入水火登刀輪

내지입수화등도륜

나아가 불이나 물에 들어가는 법과 칼산에 오르는 것,

一食長坐不臥

일식장좌불와

또는 한 끼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는 법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盡是外道有爲之法

진시외도유위지법

이는 모두 외도의 유위법이다.

若識得施爲運動靈覺之性

약식득시위운동영각지성

만약 분별하고 운동하며 신령스럽게도 깨달아 아는

그 성품을 안다면

汝心卽諸佛心

여심즉제불심

바로 그대 마음이 모든 부처의 마음이다.

前佛後佛 只言傳心 更無別法

전불후불 지언전심 갱무별법

모든 부처님이 마음 전하는 법을 말했지 다른 법은 없다.

若識此心 一字不識亦是佛

약식차심 일자불식역시불

만약 마음을 알면 한 글자도 몰라도 부처니라.

若不識自己靈覺之性

약불식자기영각지성

그러나 자기의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을 모르면

假使身破微塵 覓佛終不得也

가사신파미진 멱불종부득야

설사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부처를 찾아도 헛일이니라.

15 言語道斷 心行處滅

마음은 형상도 인과도 뼈도 없다

마치 허공같아서 잡을 수도 없다

佛者亦名法身 亦名佛心

불자역명법신 역명불심

부처란 법신이라고도 하며, 또한 불심(佛心)이라고도 한다.

此心無形相 無因果 無筋骨

차심무형상 무인과 무근골

마음은 형상도 없고 인과도 없고, 힘줄도 뼈도 없다.

唯如虛空 取不得

유여허공 취부득

마치 허공 같아서 잡을 수도 없다.

不同質界 不同外道

부동질계 부동외도

물질 세계와는 다르고, 외도와도 다르다.

此心 唯如來一人能會

차심 유여래일인능회

이 마음은 오직 여래 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其餘衆生迷人 不明了

기여중생미인 불명료

그밖의 중생이나 미혹한 사람은 밝게 알 지 못한다.

此心不離四大色身中

차심불리사데색신중

마음은 육신을 여의지 않았다.

若離是心 卽無能運動

약리시심 즉무능운동

만약 마음을 떠나면 운동할 수도 없다.

是身無知 如草木瓦礫

시신무지 여초목와력

이 육신은 무지하기가 마치 초목이나 기와조각 같아서

身是無情 因何運動

신시무정 인하운동

몸뚱이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하겠는가.

若自心動 乃至語言施爲運動

약자심동 내지어언시위운동

만약 자기 마음이 움직이거나 내지 말하고, 베풀고, 운동하고,

見聞覺知 皆是動心動用

견문각지 개시동심동용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다 마음이 움직이고 작용하기 때문이다.

動是心動

동시심동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動卽其用

동즉기용

움직임 그 자체가 작용이니,

動用外無心

동용외무심

움직임과 작용 이외에는 마음이 없다.

心外無動

심외무동

마음 밖에는 움직임이 없다.

動不是心 心不是動

동불시심 심불시동

만약 움직인다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動本無心 心本無動

동본무심 심본무동

움직이면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본래 움직임이 없다.

動不離心 心不離動

동불리심 심불리동

따라서 움직임은 마음을 여의지 않았고

마음은 움직임을 여의지 않았으나,

無心離離 無心動動

무심이리 무심동동

마음은 여의는 것도 여의었다는 생각도 없으며,

마음은 움직이는 것도 움직인다는 생각도 없다.

是心用用 是心動動

시심용용 시심동동

이는 마음의 작용과 작용한 것이고,

마음의 움직임과 움직인 것이다.

卽心用用

즉심용용

즉 마음 그대로의 작용과 작용한 것이며

卽心動動 不動不用

즉심동동 부동불용

마음 그대로의 움직임과 움직인 것이지

별도로 움직이거나 작용한 것이 아니다.

用體本空 空本無動

용체본공 공본무동

작용의 바탕은 본래 공(空)하고

공은 본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動用同心 心本無同

동용동심 심본무동

움직임과 작용이 다같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마음의 근본은 움직임이 없다.

故經云 動而無所動

고경운 동이무소동

그러므로 경에 ‘움직이되 움직이는 바가 없다’ 했다.

終日去來而未曾去來 종일거래이미증거래

말하자면 종일 가고 오되 가고 온 적이 없고,

終日見而未曾見 終日笑而未曾笑 종일견이미증견 종일소이미증소

종일 보되 본 적이 없고, 종일 웃되 웃은 적이 없고,

終日聞而未曾聞 終日知而未曾知 종일문이미증문 종일지이미증지

종일 듣되 들은 적이 없고, 종일 알되 안 적이 없고,

終日喜而未曾喜 終日行而未曾行 종일희이미증희 종일행이미증행

종일 기뻐하되 기뻐한 적이 없고, 종일 다니되 다닌 적이 없고,

終日住而未曾住 종일주이미증주

종일 머물되 머문 적이 없는 것이다.

故經云 言語道斷 心行處滅 고경운 언어도단 심행처멸

그러므로 경에 '말로써 표현할 길이 끊어졌고

마음으로 따질 자리가 없어졌다' 하였다.

見聞覺知 本自圓寂 견문각지 본자원적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가 원적(圓寂)하니,

乃至瞋喜痛痒 何異木人 내지진희통양 하이목인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렵다 하는 것이

목인(木人)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只緣推尋 痛痒不可得 지연추심 통양불가득

이로 인해 미루어 보면 아픔이나 가렵다는 것은

그 근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16 三界空無物

너그러울 땐 법계를 덮지만

좁아지면 바늘 끝도 용납 않네

故經云 고경운

경에 말하기를

惡業卽得苦報 善業有善報 악업즉득고보 선업유선보

‘악업은 곧 괴로운 과보를 받고 선업은 곧 좋은 과보를 받는다’ 하였으니,

不但嗔墮地獄 喜卽生天

부단진타지옥 희즉생천

성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若知嗔喜性空 약지진희성공

만약 성내고 기뻐함의 성품이 공(空)함을 알아서

但不執 卽業脫 단불집 즉업탈

집착함이 없다면 바로 업(業)에서 벗어난다.

若不見性 약불견성

그러나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講經決無憑 강경결무빙

경전을 강론한다 해도 결코 아무런 보탬이 없다.

說亦無盡 설역무진

설명하자면 끝이 없기에

略標邪正如是 약표사정여시

간략히 옳고 그름을 이처럼 표방했으나

不及一一也 불급일일야

자세히는 다 미치지 못했다.

頌曰(송왈)

心心心難可尋 심심심난가득

마음 마음 하는 그 마음 찾을 길 어려워라.

寬時偏法界 관시변법계

너그러울 땐 법계에 두루하지만

窄也不用鍼 착야불용침

좁아지면 바늘 끝도 용납치 않네.

我本求心不求佛 아본구심불구불

나는 본래 구하는 마음으로 부처를 찾은 적 없나니,

了知三界空無物 요지삼계공무물

삼계(三界)가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 아노라.

若欲求佛 但求心 약욕구불 단구심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만을 찾아라.

只這 心心心是佛 지저 심심심시불

마음 마음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로다.

我本求心心自持 아본구심심자지

내가 본래 찾는 마음도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나니,

求心不得待心知 구심부득대심지

찾는 마음으로 마음 알기를 바라지 말라.

佛性不從心外得 불성부종심외득

불성(佛性)은 마음 밖에서 얻는 것 아니니,

心生便是罪生時 심생변시죄생고

마음이 일어나는 그 때가 바로 죄가 생기는 때니라.”

偈曰(게왈)

吾本來此土 오본래차토

내가 중국에 온 것은

傳法救迷情 전법구미정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지려 함이네.

一花開五葉 일화개오엽

한 송이 꽃에 다섯 개의 잎이 달렸으니

結果自然成 결과자연성

그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